

“학인 스님, 본분납자로 용맹 정진하길”

조계종 기본선원, 8일 인제 백담사에 신축학사 개원



조계종 기본선원 학사가 새롭게 마련됐다. 기본선원은 10월 8일 인제 백담사 무급선원에서 기본선원 학사 봉헌식 및 교과안거 입제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기본선원은 행사교육을 마치고 사미 사미니계를 받은 학인스님들이 간화선을 배우고 익히는 곳으로 조계종 기본교육기관 가운데 한 곳이다.

기본선원은 1994년 제도 창설 이후 20년 동안 지정 장소가 없었다. 이번 신축 학사 개원으로 1학년부 4학년 학인스님들 모두 백담사 무급선원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이어 제2대 기본선원 조실로 추대된 무산 스님은 백

담사 무급선원과 신홍사 향성선원을 개원했으며, 기본선원 도량을 백담사로 일원화하는 등 선종진작에 앞장서 왔다.

이번 무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출가”라고 강조하며 일념정진을 당부했다.

행사는 현판식 및 테이프커팅식,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법문, 사홍서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조계종 선원 수좌복지회 대표이사 의정스님, 전 기본선원장 지환스님, 양양 낙산사 주지 도후스님, 백담사 무급선원 유나 영진스님, 서울 흥전사 주지 정념스님, 불학연구소 장혜명스님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가을 산사 정취 만끽한 ‘야단법석’

10월 4일 부안 내소사 괘불재 및 산사음악회



괘불재와 함께 열린 합창단의 음성공양 장면. 1000여 대중의 환희심을 자아냈다.

가을 단풍이 농익어가는 능가산 내소사에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커다란 야단법석이 열렸다.

천년향기를 간직한 부안 내소사(주지 진학)는 10월 4일 대웅보전 앞마당에 영산회상괘불명화(보물 1268호)를 내걸고 괘불재와 열두번째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세번째 열린 내소사 괘불재는 부처님께 괘불이운을 고하는 의식과 범종 33타에 이어 스님들과 마을 청년들에 의해 괘불을 괘불대에 내걸면서 시작됐다.

입에 재갈을 문 괘불이운단이 괘불을 대웅보전에서 철 당간에 봉안하자 불자들과 관광객들은 높이 10.5m, 폭 8.17m의 초대형 괘불의 위용과 장엄한 모습에 합장 경배하며 환희로움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어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염원하는 괘불재의 시작을 부처님께 알리고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청정한 마음을 다지며 고물문 낭독이 이어졌다.

범패와 영산작법, 육법공양, 행복한 마음을 담은 기도의 시간인 통천, 합창단의 음성공양, 괘불을 다시 법당으로 모시는 괘불봉안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괘불재에는 1000여 사부대중이 운집해 성대하게 봉행했다.

괘불재에서 내소사 사부대중은 고불문을 통해 “내소사 괘불 부처님께서 나투신 것은 평등사상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대중들은 탐욕과 미움을 돌려 차별없는 평등과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자”며 “일상생활에서의 행이 순수한 마음의 삼매가 되어 환희 묘약이 될 수 있도록 가피를 달라”고 발원했다.

내소사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아 일본에서 전시하기 위해 방문한 일본 사진가 무라카미 고메이는 “내소사는 불교의 정신이 잘 살아있는 사찰이고 괘불을 처음 받을 때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고

세계누구라도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고 감탄하며 “우연이지만 연간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기회를 얻는 것에 대해 매우 감동했다”고 즐거워 했다.

산사에 망거미가 내려앉자 가수 현진우의 사회로 열 두번째 산사음악회가 개최됐다.

노래하는 스님으로 널리 알려진 심진스님을 비롯해 3인조 통기타 그룹 프롤로그, 가수 박강수, 성악중창단 노래사랑 앙상블, 들국화 패밀리, 추가열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도 열려 참석 대중들은 가을 밤 산사의 정취에 흥취 젖어들었다.

괘불, 1년에 한번 대중에 공개 1천여 대중 감탄사 ‘연발’ 산사음악회, 심진 스님 등 출연

진학 스님은 “내소사 괘불재가 지역민들에게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산사에서 음악회를 즐기며 깊어가는 가을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며 “이 가을을 여는 10월 첫째주 세 번째 괘불재와 열두번째 산사음악회에 함께 해준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기원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보물 1268호 내소사 괘불은 높이 10.5m, 폭 8.17m로 조선 숙종 26년(1700년)에 제작됐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대중들에게 설법하는 모습을 담은 영산회상도이며 석가모니불을 비롯해 다보여래, 아미타불,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의 명호가 날날이 기록되어 불교미술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양사 불교수석전시관 개관전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수석 550여점 공개

장성 백양사(주지 진우)는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성보박물관 내 ‘백양사 학봉선석원’ 개관 기념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학봉선석원은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이 40여 년 간 수집한 수석 550여점을 모아 지난 4월 개관했다. 학봉은 지선스님의 법호에서 이름을 따왔다.

학봉선석원은 100여 평 규모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특별 전시 기간 동안



‘오백 나한상’을 일반에 공개한다. 노덕현 기자

증심사, 명사 초청 릴레이 강연 ‘화제’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연광)는 10월 8일 경내 취백루에서 조계종 교수아사리 자연 스님 초청 법회를 개최했다. “2014 명사초청법회-무등(無等)에서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자연 스님은 “생활 속에 행복한 삶”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조계종 교수아사리를 역임하고 있는 자연스님은 일반인을 위한 불교문화에 대한 다양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증심사 명사초청법회는 이날 자연 스님 초청강연에 이어 11월 명법 스님(조계종교수아사리), 12월 혜민 스님(미국햄프셔교수) 등

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초청강연에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와 증심사 대원장학회는 불자체육인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행사에는 박재현 광주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체육인불자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령 선수 백종윤(첨단고등학교 3학년), 팬싱 선수 임진서(전남 여자고등학교 1학년), 소프트볼 선수 김다원(봉산중학교 3학년)에 250만원 장학금을 지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순 도원사, 청소년가장 위한 음악회

소년소녀 가장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화순 모후산 도원사(주지 진철)는 지난 10월 5일 도원사 야외음악당에서 ‘도원사 개원 10주년 기념, 소년소녀 가장돕기 제5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봉암사 도원 스님,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 선각종 원로의원 자공 스님을 비롯한 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원사는 사찰과 신도들이 마련한 장학금을 소년소녀가장 20여 명에게 전달했다. 행사는 모후산 풍물단 지심밧기 시정공연에 이어 1부 법요식, 장학금 전달식, 2부 문화공연과 노래자랑, 경품추첨, 3부 초청공연이 진행됐다. 초청공연에는 가수 현진우, 신동, 정주호, 현주, 허승자, 김지은, 박동운, 이진숙, 광주난타 등이 출연해 행사의 흥을 돋웠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지역 불교대학 연합체육대회 개최

불교대학간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고 전북불교의 새로운 도약과 화합을 다지는 전북지역의 5개불교대학 연합체육대회가 10월 3일 전북 무주국민체육관에서 열렸다.

화엄, 전북, 이리, 남원, 무주불교대학의 재학생과 동문 3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체육대회는 배구, 탁구, 테니스, 2인3각 달리기, 릴레이,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등의 단체경기 위주로 진행됐다.

전북사암승가회(회장 성우, 금산사 주지) 주최로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전북지

역 불교대학 체육대회는 전북불교대학 학장 도원스님, 남원불교대학 학장 응묵스님, 무주불교대학 부학장 보산스님을 각 지역의 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문 회장 등 각 지역 불교를 이끌어 가는 불교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격려하고 성원했다.

이날 종합우승은 대회를 주관한 무주불교대학이 차지했으며 지난대회 우승팀인 이리불교대학은 준우승을 전북불교대학은 은메달을 차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군사회복지시설, 제7회 복운 경로축제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실버 백일장 시상, 위풍당당 OX 퀴즈 등



선운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창군 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은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10월 8일 복운 경로축제를 개최했다.

800여 지역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복운경로축제는 박우정 고창군수, 이상호 고창군의회장, 김춘진 국회의원 등 지역 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해 어르신들과 축제를 즐겼다.

1부 기념식에 이어 위풍당당 OX 퀴즈, 난타공연, 에어로빅 공연, 사물놀이, 뚱뚱꽃 생화체조 등의 공연, 레크레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복운경로축제는 노인에 대한 공경 의식을 높이고 어

르신에게 즐거움과 흥겨움을 드리려고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권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써 온 박군수 어르신, 전성근 어르신, 박래민 어르신이 수상하였고 실버 백일장 시상은 서경금 어르신과 이수자 어르신이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고창군 박우정 군수, 이상호 군의회 의장, 김춘진 국회의원, 장명식·이호근 도의원, 황기석 소방서장, 김형희 보건소장, 유덕근 고창농협장과 지역 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으며, 1부 기념식 및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백일장 수상자 시상과 2부 위풍당당 OX 퀴즈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창간 20주년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승가회

총재 무공

회원 일동

주소 :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 2821-46길 신해사 전화 : 055)855-1772

담 화 문

중단의 선거는 자유로운 의사와 승가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중단의 대의 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제16대 중앙총회를 구성하는 중앙총회의원 선거도 선거법에 근거하여 여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중단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단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법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중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2.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및 공표 행위 및 사생활 비방 행위
3.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4.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댓가를 제공키로한 행위
5. 선거인·후보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
6. 투·개표상 각종 불법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는 최고 ‘공권정치 10년’의 징계에 해당하는 중한 불법행위이며, 당선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중무원 후보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하고 조치할 것입니다. 지위나 당선 여부를 떠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제16대 중앙총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 및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단 선거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6대 중앙총회의원 선거 관련 불법행위 제보(익명 제보도 가능함)

전화 : 02-2011-1838 전송 : 02-735-0613 메일 : 1998060801@buddhism.or.kr

2014년 10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세영